

고려 후기 ‘傳’의 展開와 士大夫意識

박 혜 숙*

1. 序

고려시대의 역사는 武臣亂을 분수령으로 하여 前·後期로 大別된다. 사회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려후기의 사회는,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의 士人이나 吏族들이 중앙의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신진사대부층을 형성함으로써 그들과 權門勢族 사이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었다.¹⁾ 우리 문학사에서 漢文學의 한 장르인 傳이 토착화되면서 본격적인 장르로서 발전해 간 것은 고려후기인데, 이러한 傳의 토착화는 신진사대부층의 등장이라는 고려후기의 사회사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 前期까지의 傳으로는 「往五天竺國傳」(慧超 著), 「唐大薦福寺故寺主翻經大德法藏和尚傳」(崔致遠 撰), 『三國史記』列傳, 『殊異傳』 등의 일부 작품, 「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赫連挺 撰) 등이 現傳하며 金大問의 『高僧傳』과 『花郎世記』, 『鷄林雜傳』, 그리고 최치원의 「浮石尊者傳」을 비롯한 몇 편의 僧傳이 제목만 전하고 있다. 위의 例示에서 알 수 있듯 고려 前期까지의 傳은 그 명칭이 포괄적이며 아직 독자적인 장르로서의 특질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다만 최치원과 赫連挺의 傳만이 후대의 傳 장르의 일반적 특질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문학의 한 장르로서 傳을 운위할 경우, 그것은 文人이 개인적인 견지에서 의미를 발견하거나 특이하다고 생각한 인물에 대해 그 행적을 기

* 박사과정

1) 李佑成, 「高麗朝의 ‘吏’에 대하여」(歷史學報 23, 1964).

룩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傳이 개인의 文集에 나타나는 현상이 일반화된 것은 고려후기에 이르러서였다. 다시 말해 이 시기에 이르러 傳은 우리 문학사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장르로 정립되기에 이른다.

주지하듯이, 傳을 하위분류하면, 史官의 傳인 史傳과 文士의 傳인 私傳으로 兩大別된다. 이 중 문학의 장르로서 문제시되는 것은 개인적인 文士의 傳인 私傳이며, 이 私傳은 다시 주제 제시의 방식에 따라 家傳, 托傳, 假傳으로 나뉜다.²⁾ 고려후기에 오면 이러한 家傳, 托傳, 假傳이 모두 다양하게 창작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傳이 본격적으로 토착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傳의 성립은 무신정권기의 신진사인의 등장 및 그를 뒤이은 신진사대부층의 성장·발전이라는 역사적 추세와 관련이 있다. 그 이전까지의 文人是 貴族社會 내에서 지배권력의 下手를 담당할 뿐인 일종의 기능인으로서의 위치에 있었으며 귀족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계층으로 성립되지는 못한 상태였다. 고려전기까지의 문학에서는 귀족정치에 附庸하여, 정치·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文人の 주요한 임무였으며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 걸맞게 修飾을 위주로 한 駢儷文이나 表箋의 제작이 성행하였다. 고려전기까지의 그러한 문학적 상황은 『東文選』을 통해 잘 엿볼 수 있다.

文士의 傳은 正史의 缺을 보충한다는 의식에 입각한 것이며 그런만큼 작가의 가치관 내지는 역사의식이 강하게 밀받침되고 있는 장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려후기에 傳 창작이 성행했다는 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 文士들이 자기들 나름의 독자적인 가치관, 역사관을 형성하고 그것을 對社會的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傳의 역사적 변천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사대부층의 가치관 내지 역사관의 변모를 史的으로 개관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려후기의 傳을 우리나라 傳의 본격적 전개에 있어 그 前期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것들을 주제제시 방식에 따라 假傳, 托傳, 家傳으로 나누어 형식상, 내용상의 특질을 고찰하되, 이 三者 사이의 상호관계와 역사적 추이를 검토함으로써 이 시기에 새로운 계급으

2) 徐師曾, 『文體明辯』의 傳 해설 참조.

로 성장해 간 사대부층의 의식세계의 변모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본론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假傳, 托傳, 家傳은 소재, 주제제시 방식, 표현법, 작가의식 등 여러 측면에 있어 확연히 구별되는데, 고려 후기 文士의 傳에서 이들이 시간적 先後관계를 가지면서 차례대로 출현한 점이 주목된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가? 이러한 현상이 이 시기에 성장한 신흥사대부층의 의식 세계의 역사적 추이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또 假傳, 托傳, 家傳이라는 형식의 내면적 특징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본고는 대체로 이러한 문제들에 유의하면서 논의를 진행시키 고자 한다.

2. 假傳의 경우

假傳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一代記를 허구적으로 구성함으로써 人間事를 寓意의으로 褒貶하는 장르이다.³⁾ 고려 후기의 假傳은 10편이 확인된다.⁴⁾ 假傳은 무인정원기에 최초로 발생하여 그 이후로도 창작되었으나, 작품 수나(7편임) 그 전형적인 면모에 있어서 무인정원기의 假傳이 주목되어야 마땅하다.⁵⁾ 무인정원기 이후의 假傳은 3편이 있는

- 3) 고려 후기의 傳에 대한 연구는 假傳에 편중되어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연구성과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신기형, 「가전체문학논고」(국어국문학, 15, 17, 1956), 김광순, 「한국의인문학의 사적 제보와 성격」(어문학 16, 17, 1967), 조동일, 「가전체의 장르규정」(장암 지현영선생 화갑기념논총, 호서문화사, 1971), 조수학, 「가전연구」(어문학 29, 1973), 김현룡, 「국선전과 국선생전」(국어국문학 65·66 합, 1974), 김광순, 「고려 후기 의인문학의 형성과 문학사적 의의」(『고려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75), 안병설, 「가전에 대한 異見 散放」(『명지어문학』 7, 1975), 안병설, 「가전에 대한 異見 續放」(『명지어문학』 8, 1976), 안병설, 「고려가전의 형성과 그 성격」(『북악한학』, 1978), 이정탁, 「고려가전연구」(『이병주선생 주갑기념논총』, 1981), 신혜수, 「가전의 우의성」(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1982).
- 4) 「麴醇傳」, 「孔方傳」, 「麴先生傳」, 「淸江使者玄夫傳」, 「氷道者傳」, 「竹尊者傳」, 「丁侍者傳」, 「竹夫人傳」, 「楮生傳」이 現傳하며, 「無腸公子傳」은 그 이름만 전한다.
- 5) 무인정원기의 假傳은 林椿의 「국선전」, 「공방전」, 李奎報의 「국선생전」, 「청강사자환부전」, 憲謹의 「빙도자전」, 「죽존자전」, 李允甫의 「무장공자전」의 7 편이다.

데⁶⁾ 이 작품들에 대해서는 무인정권기의 文士의 假傳을 살펴 본 다음에 언급하기로 한다.

傳이 비로소 독자적인 장르로 형성되기 시작한 무인정권기에 창작된 작품의 대다수가 假傳이라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이 시기에는 文士들 사이에서 假傳이 크게 유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憲謹과 같은 사대부 출신 승려의 작품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규보가 「李史館允甫詩跋尾」라는 글에서 李允甫의 “「無腸公子傳」 등의 嘲戲의 작품 같은 것은 韓退之의 저작인 「毛穎傳」이나 「下邳侯革華傳」과 서로 비교한다 해도 나는 누가 앞서고 누가 뒤질지 알지 못하겠노라”라고 하여 假傳을 〈嘲戲〉라고 한 사실이나, 憲謹이 假傳을 짓고는 그것을 〈喻況〉이라 스스로 말하고 있음에 유의한다면, 이 시기 假傳의 성행은 작가의 寓意的인 表現欲求와 관련되어 있으며, 또 그러한 우의적 표현욕구는 무인정권기 文士(지식인)의 미묘했던 사회적 입장과 깊이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승려였던 憲謹의 작품은 일단 제외하고 林椿과 李奎報의 假傳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林椿과 李奎報가 立傳 대상으로 선택한 사물은 술[麴], 돈[孔方], 거북[玄夫]이다. 이처럼 작품의 素材가 事物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임춘과 이규보의 假傳에는 이 시기 文士들의 사물에 대한 관심이 표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물에 대한 관심은 이 무렵부터 등장하여 나중에 조선을 건국하기에 이르는 신흥사대부층의 사고방식의 주요한 일 측면을 이룬다는 견해가 일찌기 제기된 바 있다.⁷⁾ 소재를 무엇으로 택하는가 하는 데서 이미 작가의 지향성이 개입될 것이므로 그런 정도로는 이들 假傳에 작가의 사물에 대한 관심이 일정하게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들 假傳에 주인공이 된 사물의 본질에 관한 새로운 인식이 표현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술이 사람의 기운을 북돋워 주긴 하지만 사람을 망치게 할 수도 있다든가(「麴醇傳」, 「麴先生傳」), 돈이 권력과 결탁하여 정치를 문란케 할 수도 있다든가(「孔方傳」), 거북이 총명

6) 李穀의 「죽부인전」, 息影庵의 「정시자전」, 李膺의 「저생전」.

7) 조동일, 「가진체의 장르규정」(『장암지현영선생 화갑기념논총』, 호서문화사, 1971).

하고 침착하다든가(「清江使者玄夫傳」) 하는 것은 각 사물의 본질에 대한 새삼스런 발견, 새로운 인식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들 假傳에 事物의 본질에 대한 신진사대부의 관심이 표현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는 과대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假傳에서 題材가 된 사물은 그 사물에 대한 작가의 새로운 통찰을 드러내기 위해 채택된 것이 아니라 단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작가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비유물로서 채택된 것이라고 봄이 온당하다.

이렇듯 임춘과 이규보의 假傳은 대상이 된 사물의 본질에 관한 별다른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은 물론, 대상의 행적 또한 그 대상과 관련된 중국의 故事를 집적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假傳이라는 假構的 形式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한 바,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입전대상 자체나 그와 관련된 잡다한 故事에서가 아니라 그들 故事를 엮어매는 방식, 다시 말해 작품의 結構에서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춘과 이규보의 假傳은 공통적인 結構를 취하고 있었다. 즉 이들의 작품은 모두 재능을 갖춘 주인공이 官人으로 立身하여 帝王의 총애를 받다가 나중에 失脚 내지 致仕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임춘과 이규보는 비록 출신 계층은 달랐지만⁸⁾ 무신정권기에 처하여 官人으로 진출해야만 하는 공통적인 처지에 놓여 있었고, 이러한 공통적인 처지로 말미암아 宦路에서의 처세 및 官運에 대한 관심이 동일한 결구방식으로 표출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춘과 이규보의 假傳은 이처럼 공통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차이도 있었다. 임춘의 假傳作品의 경우, 주인공이 된 麴醇이나 孔方이 뛰어난 자질을 갖추긴 했으나 등용된 후에는 향락에 빠진다든가 권력과 결탁하여 不正을 일삼는다든가 하는 否定적인 면모를 보임으로써 一國의 정치를 문란하게 하고 마침내는 失脚하기에 이르고 있다. 반면 이규보의 假傳에서는, 주인공인 麴先生이나 清江使者玄夫는 등용된 후에도 부정적인 면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다만 국선생의 경우, 자식들의 방자한 행동 때문에 그에 연루되어 失脚하지만 곧

8) 임춘은 무신난으로 몰락한 구귀족 출신이며, 이규보는 신홍사대부 출신이다.

다시 관직에 복귀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청강사자현부의 경우 원하지도 않는 벼슬길에 억지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등 官人으로서의 出處의 어려움을 문제삼고 있을 따름이다.

임춘과 이규보의 가전이 갖는 위와 같은 차이는, 작가의 의도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는 傳의 評結部에서도 확인된다. 임춘은 「孔方傳」에서,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큰 利를 좇는 자를 가히 충성스럽다고 할 수 있겠는가. 孔方이 法을 만나고 주인을 만나 精과 神을 모을 수 있었고, 임금의 두터운 情宜로 한량없는 총애를 받았으니, 마땅히 이로우를 일으키고 해는 제거함으로써 은혜를 갚아야 했다. 그런데도 溝를 도와 權세를 擡斷하고 사로운 黨을 세웠으니, 忠臣은 境外의 사림이 없다는 말과는 다른 사람이다.⁹⁾

라고 하여 權貴를 비판하는 한편, 본분을 일탈한 그러한 官人으로 인해 정치가 문란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李奎報는 「清江使者玄夫傳」에서,

지극히 隱微한 것을 살피며, 어떤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막는 것은 聖인도 혹 차질이 있을 수 있다. 玄夫의 지혜를 가지고도 豫且의 술책을 미리 막지 못했고 또 두 아들이 삼겨 죽는 것을 구제하지 못했으니 하물며 다른 사람이야 어떻겠는가? (……) 아,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¹⁰⁾

라고 하여 뛰어난 재능을 갖춘 인물도 官人사회에서의 出處에는 완벽을 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두 작가의 나머지 假傳도 각기 동일한 작가의식 위에서 창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임춘의 假傳에서는 官人의 본분이, 이규보가 假傳에서는 官人으로서의 出處의 도리가 각각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심의 차이는 당시 두 작가가 처한 상황의 차이를 살필 때 보

9) “爲人臣而懷二心 以邀大利者 可謂忠乎 方遭法遇主 聚精會神 以握手丁寧之契 橫受不貲之寵 當與利除害 以報恩遇 而助溝擡權 乃樹私黨 非忠臣無境外之交者也”

10) “察至微防未兆 聖人容或有差 以玄夫之智 不能杜豫且之謀 又不救二子之烹 況其餘哉(……) 嗚呼可不慎乎”

다 잘 이해될 수 있다.

임춘은 門閥貴族 출신이었는데 무신쿠데타로 인하여 참담하게 몰락하였고 그 후 줄곧 백방으로 求職운동을 벌였으나 한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불우한 생애를 보냈다. 그의 文學은 새로운 문학세계를 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문벌귀족적인 체질을 그대로 견지한 것도 아니었다.¹¹⁾ 그의 현실적인 조건은 그러한 체질을 견지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시기의 신진사류와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官人으로 진출해야 될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몰락의 경험과 구직운동의 실패로 말미암아 당대의 정치 현실, 즉 權貴가 專橫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정신이 釀成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작품이 부패한 權臣을 비판하면서 官人이 지켜야 할 본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이규보는 그 출신계층에 있어서나 의식에 있어서 이 시기 신진사류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따라서 文人임과 동시에 官人으로 성장해 나가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었고, 또 文人이기 때문에 武人이 집권하는 당대의 정치현실에 완전히 동화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그의 작품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의 모순적 입장=딜레마에 기초해 있다고 생각된다.

임춘이든, 이규보는 모두 당시의 무인정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참여의식을, 내면적으로는 반발의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들의 참여의식, 즉 官人에로의 진출에 대한 강한 관심은 假傳의 結構에서 무엇보다 잘 드러나고 있으며, 또 그들의 내면적인 반발의식은 權貴로 인한 廢政의 비판이나 지극히 出處하기 어려운 官人사회의 현실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된다. 다만 임춘과 이규보의 현실적인 처지의 차이가 당대현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차이를 갖게 하였다고 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시기 文士의 의식세계의 二重性이 그

11) 임춘의 문학에 관한 연구로는 이동환, 「임춘론」(『월암박성희박사 환력기념논총』, 월암환력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77), 김진영, 「임춘의 현실인식과 문학」(『장덕순선생회갑기념 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김진규, 「임춘의 생애와 한시연구」(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1981) 등이 참조된다.

들로 하여금 諷諭를 위주로 하는 假傳 형식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끔 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파악된다. 이규보가 假傳을 〈嘲戲〉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假傳이 작가의 文才를 과시하기 위한 戲作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 표현 속에는 당대 정치현실에 반발하면서도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自嘲, 武人이 지배함으로써 文人是 그 附庸의 존재로 되고 있었던 당대현실에 대한 일정한 풍유로서의 假傳의 의미규정이 具有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¹²⁾

무인집권기 이후의 假傳으로서, 文士의 작품은 李穀의 「竹夫人傳」과 李詹의 「楮生傳」이 있다. 이 중에서 「竹夫人傳」은 竹夫人의 조상인 蒼篔, 筍 등의 서술에 지나치게 많은 비증을 들으로써 정작 竹夫人 자신의 一代記 구성이 극히 미약해졌고, 또 竹夫人에 대한 서술만 하더라도 寓意的인 의미를 함축하는 결구를 이루지 못한 채 몇 가지 사건의 산만한 나열방식을 취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작가의 의식도 단지 竹의 정절을 칭송하는 데 그치는, 다분히 평면적이고 상투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한편 「楮生傳」은 評結部의 “太史公曰” 부분에서 조차 楮生의 家系와 관련된 故事들을 열거하고 있을 뿐, 도시 무엇을 말하려는지 그 주제의식이 분명하지 못하다. 이 두 假傳을 통해 우리는 임춘, 이규보의 시대로부터 약 1세기 반을 경과한 여말에 이르러 假傳이 그 초기의 문제의식을 상실하고 遊戲的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양상을 포착하게 된다.

이러한 假傳에 대신하여 새로운 현실적 의미를 함축하면서 여말에 성행한 것은 家傳이었다. 여말의 사대부 작가가 처한 역사적 상황이나 사회적 현실은 임춘이나 이규보의 시대와는 현저히 다른 것이었고 이러한 사회역사적 현실의 변화에 따라 신흥사대부층의 의식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야기되고 있었다. 이제 이 변화된 신흥사대부의 의식은 假傳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이었으며, 그것에 걸맞은 새로운 傳形式의 모색·발전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여말에 이르러 假傳은 文人들의 閑事, 戲作으로 퇴영적인 길을 걷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家傳이라는 양식이 새로이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12) 『韓國文學研究入門』(黃湏江 外編, 지식산업사, 1982) 중 金時鄴, 「무인집권기의 문학적 전환」에 정리된 李佑成 教授의 견해 참조.

3. 托傳의 경우

托傳은 작가 자신 혹은 어떤 인물의 행적이나 사건 등에 假傳하여 人間事의 어떤 단면을 드러냄으로써 일정한 자성이나 교훈을 의도하는 것이다. 托傳에는 작가 자신이 立傳의 대상이 된 自傳的 托傳과 他 인물의 행적에 假托한 일반적인 托傳의 두 유형이 있다. 그러나 고려 후기의 托傳은 自傳的 托傳이 2편 있을 뿐이다. 즉 12세기 末에 창작된 이규보의 「白雲居士傳」과 14세기 前半에 나온 崔瀼의 「猊山隱者傳」이 그것이다. 이 自傳的 托傳은 假傳이 성행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산출되어 여말 家傳이 풍미하던 시기까지의 중간에 전개되었는데, 이 점 주목할 필요가 있다.

自傳的 托傳은 자기자신을 소재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특이한데, 스스로를 立傳對象으로 선택한 작가의 의도는 자신을 객관화시킴으로써 자신과 세계의 관계 내지는 작가 자신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정면으로 문제삼는 데에 있었다고 이해된다. 「白雲居士傳」과 「猊山隱者傳」에서 작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피력해 놓고 있다. 白雲居士는 집안에 자주 식량이 떨어져 끼니를 잇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다고 했고,¹³⁾ 猊山隱者는 功名에 뜻을 두었으나 벼슬을 했다 하면 곧 배척을 당하여 쫓겨나게 되어 결국은 영락하여 절의 중에게서 땅을 빌어 농사를 짓게 된다.¹⁴⁾ 이들은 출세에 뜻을 두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貧窮에 시달리면서 생활하고 있다.

白雲居士의 처지는 12세기 후반 무인집권기의 신진사인의 사회적 위치와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 즉 舊中央貴族이 몰락하고 난 후 활발하게 官人으로 진출해 갔던 이 시기 신진사류의 움직임 속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아직 出仕하지는 못하고 있던 이규보의 처지와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猊山隱者의 경우는 14세기 전반을 살았던 비타협적 신진사대부로서 崔瀼가 겪어야 했던 현실과 이념 간의 갈등이 잘 드러나

13) “家屢空 火食不續”(「白雲居士傳」)

14) “慨然有志於功名 而世莫之許也(……) 輒舉輒斥而去(……) 晚從獅子岬寺僧借田而耕”(「猊山隱者傳」)

고 있다. 14세기 전반은 신진사대부층이 기존의 불교 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新儒學을 자신들의 이념으로 채택하기 시작한 때이다. 그러나 신진사대부층은 권력관계 내에서 아직은 확고한 세력기반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이에 반해 寺院, 王室과 결탁한 權門勢族의 세력은 強固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기의 신유학자 文士들은 권문세족과 일정하게 타협하고, 불교에 대해서도 儒·佛의 理致는 다르지 않다는 정도의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李齊賢, 李穀이 그러한 文士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그러나 최해는 이들과는 달리 권문세족에 대해 비타협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불우하게 일생을 마쳐야만 했다. 이처럼 불우했던 삶이 작가로 하여금 자신은 누구인가, 자신은 세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문제삼게끔 하였다고 파악된다.

이규보와 최해는 모두 자신이 탁월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괴리되는 이유를 주로 자신의 성격에서 찾고 있었다. 즉, 白雲居士는 성격이 소탈하여 단속할 줄 모르며, 六合을 좁게 여기고 천지를 비좁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었고,¹⁶⁾ 貌山隱者는 자기가 출세하는 데 뜻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성격이 권세가의 집에 드나들길 잘 못하고 술을 즐겨, 무어 잔만 마시면 남의 좋은 점 나쁜 점을 얘기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⁷⁾

그러나 이규보와 최해의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규보의 경우, 거문고를 타고 술을 마시면서 세월을 보내며 “뜻이 본래 六合의 밖에 있으니, 하늘과 땅도 그를 얽매지 못하리로다. 장차 氣의 母(道를 말함—인용자)와 함께 無何有의 세계에 노니리로다.”¹⁸⁾ 라면서 현실을 낭단적으로 초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신과 현실의 괴리를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문제삼기보다는 현실권 外

15) 이제현의 「妙蓮寺重興碑」, 「大都南城興福寺陽」, 「有元高麗國曹溪宗慈氏山瑩源寺寶鑑國寺碑銘」 등이 라든가, 이곡의 「京師金孫彌陀寺記」, 「興王寺重修興教院落成會記」, 「高麗國天台佛恩寺重興記」 등에서 이들의 사상경향을 엿볼 수 있다.

16) “性放廣無檢 六合爲隘 天地爲窄”

17) “慨然有志於功名 而世莫之許也 是其性不善於伺候而又好酒 數爵而後說人善惡”

18) “志固在六合之外 天地所不囿 將與氣母 遊於無何有乎”

의 초월적 정신세계 속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태도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규보의 역사적인 위치는 신진사대부층의 선구적 존재였으나, 그 의식세계는 아직 신진사대부로서의 독자적 의식으로까지는 발전해 있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최해의 경우는, 결국 官人으로서의 진출을 단념하고 사찰로부터 땅을 빌어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에 대해 “너의 땅과 너의 農圃는 三寶로부터 받은 무거운 은혜로다. 수확의 만족스러움 어디서 온 것이냐. 부디 잊지 말지어다.”¹⁹⁾라는 座右銘을 짓고 있는 거기에서 “평소에 불교를 좋아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침내 그들의 소작농이 되었으므로 대저 평소의 뜻이 틀어진 것을 하소연하며 스스로를 조롱한 것”²⁰⁾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최해의 이러한 〈自嘲〉는 자신과 현실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데서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官人으로서의 진출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또 불교세력의 경제적 지배에 예속당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자신과 지배권력, 자신과 불교세력 사이에는 해소될 수 없는 대립관계가 있음을 날카로이 인식함으로써 그러한 自嘲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최해의 의식은 이규보보다는 신진사대부로서의 자기의식에 한층 투철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고려 후기의 托傳은 假傳이 성행하던 무렵에 발생하여 14세기 후반 家傳이 대거 창작되는 시기 사이에 전개되었다. 假傳이 무인집권기 文士들의 위축된 상황과 그러한 상황에서 오는 의식의 二重性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면, 이규보와 최해의 自傳의 托傳은 신진사대부가 자기의식을 정립하려는 시도를 잘 보여 준다 할 수 있다.

물론 이규보의 시대든, 최해의 시대든 신진사대부층의 현실적 힘은 아직 強固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자신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낭만적으로 초월하고자 한 이규보와 객관적으로 응시하면서 自嘲의 태도를 취한 최해의 차이에서 신진사대부층의 자기의식이 정립되어 가고 있는 역사적 추세를 알 수 있다.

19) “爾田爾圃 三寶重恩 取足奚自 愼可諉”

20) “隱者素不樂浮屠 而卒爲其佃戶 蓋訟夙志之爽 以自戲云”

4. 家傳의 경우

家傳에는 한 家門의 뛰어난 인물들의 事蹟을 기술한 것과 한 개인의 특이한 행적을 기술한 것의 두 종류가 있다. 고려 후기 家傳에는 家門을 다룬 것이 2편, 個人을 다룬 것이 16편 있는데, 그 대부분이 14세기 후반에 창작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주목을 끈다. 다시 말해, 대체적이긴 하지만,²¹⁾ 假傳이나 自傳的 托傳에 비해 시기적으로 나중에 출현했다는 점, 또 신진사대부층이 확고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여 결국은 조선을 건국하기에 이르는 역사시기에 家傳이 활발하게 창작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家門을 다룬 것으로는 「鄭氏家傳」과 「星主高氏家傳」이 있는데, 두 편 모두 작가가 그 입전대상이 된 家門의 일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쓴 것이다. 家門의 傳이 창작되는 것은 사대부층 특유의 家門意識의 소산이며, 그러한 가문의식이 이 시기에 나타났다는 것 또한 신진사대부층의 성장과 결부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작가의 주체적인 創意는 미약하므로 신홍사대부의 의식세계를 고찰하는 본 논의에서는 일단 제외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제 個人을 立傳 대상으로 한 家傳을 살펴 보기로 하자. 우선 立傳 대상이 된 인물들을 그 신분에 따라 나누어 보면 사대부층의 인물은 士族의 女까지 포함하여 12편이고,²²⁾ 在下層 인물이 4편이다.²³⁾ 대체로 보아 사대부층 인물에 관한 傳이 먼저 산출되고 그 후에 在下層 인물에 관한 傳이 나타났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21) “대체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규보의 「盧克清傳」은 부인집권기에 창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품 1편만을 제외하고 할 뿐 나머지 家傳들은 모두 14세기 이후에 창작되었다.

22) 이규보의 「盧克清傳」, 이곡의 「節婦曹氏傳」, 李穡의 「宋氏傳」, 「吳全傳」, 「朴氏傳」, 「草溪鄭顯叔傳」, 「崔氏傳」, 「白氏傳」, 李崇仁의 「草屋子傳」, 「裴烈婦傳」, 權近의 「儒生裴尙謙傳」, 李膺의 「守禪傳」.

23) 鄭道傳의 「鄭沉傳」, 權近의 「司宰少監朴強傳」, 鄭以吾의 「烈女崔氏傳」은 吏族 혹은 吏族의 妻를 立傳한 것이며 權近의 「廢人孝子君萬傳」은 賤民을 입전대상으로 한 것이다.

우선 사대부층의 인물에 관한 傳을 보면 立傳 대상이 된 인물들은 官人으로 진출한 사람, 官人으로 진출하지 못한 사람, 士族의 女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들이 立傳 대상이 된 이유를 보면 크게 2가지였는데, 그 하나는 사대부적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높이 평가할 만한 행적을 보였다는 것, 다른 하나는 뛰어난 재능을 갖고서도 불우하게 일생을 마쳐 그 사적이 인멸될 처지에 있다는 것이었다.

먼저 前者의 경우를 보면, 재물에 대한 청렴한 태도(「盧克淸傳」, 「草屋子傳」), 外柔內剛의 군자의 德(「儒生襄尙謙傳」), 忠·孝·烈의 행적(「節婦曹氏傳」, 「襄烈婦傳」, 「草溪鄭顯叔傳」), 적극적인 排佛활동(「草溪鄭顯叔傳」) 등이 立傳의 구체적 이유가 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대부적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높이 평가할 만한 미덕이거나 행적이 된다. 이러한 내용의 傳은 朝鮮後期에도 量産되었지만 그 역사적 의의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조선후기에 산출된 이러한 내용의 傳은 下層으로부터의 도전에 대응하여 지배적 가치를 옹호하려는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반면 고려후기의 작품들은 권문세족이나 불교적 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신진사대부의 독자적인 가치관을 드러내기 위해 제출되고 있었다.

뛰어난 재능을 갖추고도 불우하게 일생을 마친 인물을 立傳 대상으로 한 경우는 李穡의 「宋氏傳」, 「吳全傳」, 「朴氏傳」, 「崔氏傳」, 「白氏傳」이 있는데 宋氏, 吳全, 朴氏, 崔氏, 白氏는 모두 뛰어난 文才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였거나, 과거에는 합격했으나 관직에서 현달하지 못하고 불우하게 생애를 마친 인물들이다. 傳의 주인공인 이 다섯 인물은 李穡과 마찬가지로 사대부계급에 소속된 인물들임은 물론, 바로 이색의 知友이거나 스승에 해당하는 이들이었다.²⁴⁾ 그러나 이색이 그들을 위하여 傳을 쓴 것은 그들이 자신의 친구이거나 스승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宋氏는 이색에게 시를 가르쳐 준 인물이었고, 白氏의 기억력은 이색보다 뛰어났으며, 崔氏는 문장이 崔瀼에 비길 정도였다고 했다. 吳全은 선배와 老儒들의 칭예를 받았으며, 朴氏는 과거공부 따위는 가소롭게 여겼던, 襟度가 크고 활달한 인물이었다. 이색은 이러한 인물들의 행적

24) 宋氏는 이색의 스승적인 인물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이색의 知友였다.

을 기술함으로써, 자기와 다를 바 없거나 혹은 자기보다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불우하게 살다 갔던 자기 계층의 인물들의 존재를 후세에 알리고자 하고 있었다. 이색은 그들의 행적을 歷史에 남기는 것이 자신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예컨대, “뒷사람이 장차 仲剛(朴氏의 字—인용자)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알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강은 아주 없어지고 전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하물며 仲剛에게 자식도 없음에라? 나는 이를 매우 슬피 여겨, 간단히 그의 대략을 적어서 아는 사람이 있기를 기다린다”²⁵⁾(「朴氏傳」)라든가, “그 사람을 알면서 그의 傳記를 써서 뒤에 전하지 않게 하는 것은 어진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²⁶⁾(「白氏傳」)라는 말에서 엿볼 수 있는 의식은 비단 이색의 家傳에서만 아니라 이 시기 다른 작가의 家傳에도 일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었다. 歷史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삶에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의식, 인멸될 수도 있는 빼어난 인물들의 행적을 후세에 전하여 모범을 삼게 해야 한다는 垂範의식은 사대부계층의 형성과 더불어 일반화된 儒家的 역사의식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이 시기 이후의 작가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각 시대의 작가들이 처한 입장이나 역사적 상황에 유의하여 본다면,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超歷史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여말의 逸士傳은 조선조 중기나 후기의 逸士傳과는 그 역사의식의 內質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각 시대의 작가들은 자기시대의 문제에 對해 자신의 역사특수적 입장에서 나름의 가치관과 人間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고려후기의 家傳들은 신흥사대부적 이념에 입각하여 입전인물이 지닌 인간적 德目を 表彰하고 있거나 사대부로서 남다른 뜻과 재능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歷史에 깊이 부각시켜 놓고자 한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의도 속에는 그러한 德目, 그러한 인물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그러한 덕목, 그러한 인물이 널리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바

25) “後之人 將不知仲剛爲人之如何也 是仲剛泯焉無傳矣 況無子乎 予悲之甚 略書大概 以竣知者”

26) “知其人而不使其傳 非仁人之心也”

람직한 사회라는 견해가 잠재되어 있다. 李崇仁이 「草屋子傳」에서 草屋子の 청렴함을 贊하면서 “마루 높이가 두어길, 붉은 기와 치간 집. 그 걸 갖고 뽐내지만, 귀신이 벌써 그 방을 넘보고 있네. 그런 사람 어떤 인가? 그런 사람 어떤 인가?”²⁷⁾라고 하여 권문세족의 사치스러움을 비판하고 있는가 하면, 이색이 「草溪鄭顯叔傳」에서, 그때의 權臣이 불교를 덕없이 좋아했으므로 지방수령으로서 적극적인 排佛活動을 전개한 鄭顯叔에 危害를 가하려 했었다고 서술함으로써,²⁸⁾ 당시 신진사대부와 권문세족 사이의 사상적 대립을 표현하고 있는 것도 모두 그런 견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대부층의 인물을 입전대상으로 한 위의 傳들이 씌어진 14세기 후반은 신홍사대부층이 정치방면에서 일정한 세력기반을 형성할 정도로 성장한 때였다. 이 시기 신홍사대부계급은 자신들의 의식을 신유학 이념으로 무장하고 권문세족과의 대립을 본격화시키고 있었다. 위에 언급한 傳들은 이러한 신진사대부의 사회적 성장과 그 의식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것들은 앞서 살펴 보았던 假傳이나 自傳的 托傳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진사대부들의 독자적인 가치관과 계층의식이 발전, 확립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색이 신홍사대부층의 인물들에 관한 傳만을 7편 남긴 데 반해, 在下層의 인물들에 관한 傳은 이색의 다음 세대이면서 이색보다는 더욱 첨예한 신진사대부로서의 자기인식을 가졌다고 보이는 鄭道傳, 權近, 鄭以諤 등에 의해 창작되었다. 물론 이 작가들에 있어서도 그 이념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이색보다 더 격렬한 정치변동의 상황 속에서 출생·성장한 세대들답게 기본적으로 한층 강렬한 사대부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고려 후기의 쫓기간을 통해 줄곧 성장해 온 신진사대부층은 이제 14세기 후반의 이 시기에 이르러 田制改革, 新王朝 건국의 사대에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격변의 역사 속에서 신진사대부층의 작가들이 在下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다.

입전대상이 된 在下層 인물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吏族이 3명이

27) “彼堂高數仞 朱甍千楹 以自誇耀 而鬼已瞰其室者 獨何人哉 獨何人哉”

28) “會柄用大臣 佞佛甚 欲置顯叔死地”

고 賤民(광대)이 1명이었다. 이들이 입전대상이 된 이유는 忠(「司宰少監朴強傳」, 「鄭沉傳」), 孝(「優人孝子君萬傳」), 烈(「烈婦崔氏傳」) 등에 있다. 이러한 것들은 누구보다도 사대부 자신들이 실천해야 할 가치들이었는데, 한미하고 무지한 在下身分이 오히려 그것들을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사대부 작가들은 그러한 사실을 전하고 역사에 기록해 두고자 하고 있었다. 나아가서는 在下層 吏民의 행적에서 진정으로 가치있는 삶을 발견함을 통해, 그와 대조되는 양반의 행적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었다. 일개 아전으로서 왜구에게 대항하다가 장렬히 죽은 鄭沉의 행적과 대비하여, “왜구가 환난을 일으킨 것이 30년이 가까운 오늘날, 族姓의 남녀들이 많이 포로가 되었는데, 그들은 노예 노릇함을 달가이 여겨 사양하지 않았으며, 심한 자는 그들을 위하여 간첩 노릇을 하고 길을 인도하기까지 하였다.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개, 돼지만도 못한데 스스로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정침의 죽음과 비교하면 어떠한가?”²⁹⁾라고 통박하고 있으며, 또 광대의 孝行과 士族 자제들의 不孝를 대비시켜 논하면서 “광대가 아는 것은 우스개소리 뿐이요, 士人이 지켜야 할 것은 예절인데, 士族의 일꾼 사람이 도리어 한 사람의 광대만 못하였다”³⁰⁾(「優人孝者君萬傳」)라며 士族을 논죄하고 있다.

작가들은 在下層 吏民의 그러한 행적이 예외적인 인물의 예외적인 행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알려지지 않은 숭한 백성이 흥전적,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장본인이며 현실을 지탱케 하는 밑받침이 되는 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忠義之士가 위급함을 당하여 목숨을 바치고(……) 칼날을 무릅쓰고 견고한 창을 꺾으며(……) 특이한 공적을 세웠으나, 위로는 추천하여 발탁해 주는 사람이 없고 아래로는 그것을 기록하여 주는 친구가 없어 운수 기박하게도 封侯가 되지도 못하고 事蹟이 없어져 전하지도 못하여 마침내 閭巷에서 죽어버리어 초목과 함께 썩고 마는 사람이 얼마

29) “倭寇作患 將三十年于茲 族姓士女 多被虜掠 甘爲僕妾而不辭 甚者爲之行謀 指道 視其所爲 曾狗彘之不若 而不以爲愧 無他 畏死故也 其視沉之死爲如何哉”

30) “伶人所知者諛語 而士之所守者禮 爲士者七而不若一伶”

나 되겠는가”³¹⁾(「司宰少監朴強傳」)라고 한 바에서는 이름없이 죽어가는 한미한 吏民들의 삶에 대한 작가의 절절한 연민을 볼 수 있다.

在下層 인물들에 관한 傳에서 보이는 이러한 사대부 작가의 의식은 14세기 후반의 신진사대부층이 권문세족과의 대립과정에서 하층민을 재인식하고 그들로부터 지지기반과 자신들의 정당성의 근거를 찾으려 했던 역사적 단계의 한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무인정 권기의 假傳이 보여 주었던 士意識의 二重性이나 自傳的 托傳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新進士人의 개인적인 자기의식 혹은 자신이 속한 사대부 계층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家傳의 작가들은 하층신분에 대한 인식까지를 사대부 계급의 현실의식 속에 포섭하기에 이르렀다. 在下層의 生活上의 요구를 자신들의 사회적 개혁의지 속에 일정하게 수용함으로써 사대부 계급의 이념은 그 현실성에 있어 한층 강화되고 권문세족에 대항하는 투쟁도 격화되었다.

在下身分의 인물에 관한 傳을 쓴 작가 중에서도 정도전, 권근은 이 시기 신진사대부 중에서 이념적으로 가장 치열했던 그룹의 의식의 일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하여 정도전, 권근의 傳은 이색을 비롯한 다른 이들의 傳과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형식에 있어서도 다른 면모를 보여 주고 있었다. 예컨대, 이색의 傳이 인물에 관계된 일화를 몇 개 묶어 행적을 서술하고 있고 또 그 일화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기보다는 나열의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정도전이나 권근의 傳은 해당인물의 일화를 요약적으로 간단히 제시한 다음, 그 일화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통해 자신의 思想을 표현하는 데에 더 치중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정침전」은 작가의 이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評結部가 전체의 4/5를 차지하며, 「優人孝子君萬傳」은 평결부가 전체의 2/3, 「儒生裴尙謙傳」은 평결부가 따로 있지는 않았지만 작자 자신의 주장이나 의도가 행적 서술의 중간중간에 끼어들고 있었다. 이러한 특이한 형식은, 작가가 立傳대상이 된 인물들의 행적 서술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암묵적으로 표현하는 형태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자신의 主觀이나 思想을 토로하려는 데서 초래된 것이다. 그런 만큼 작가의식

31) “自兵興以來 忠義之士見危授命(……) 冒白刃摧鋒鏖(……) 以立異效 上無薦拔之知 下無紀述之友 數奇不侯 事泯不傳 卒死閭巷 草木同腐 幾何人哉”

도 훨씬 강렬하다 하겠다. 이러한 傳이 麗末의 정치적 격동기에 정도전 권근과 같은 신진사대부의 전형적인 인물들에 의해 산출되었다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고려후기의 家傳을 살펴 보았다. 고려후기의 家傳은 14세기 후반에 집중적으로 산출되었다. 그 중에서도 사대부층의 인물에 관한 傳이 이색 등의 작가에 의해 먼저 나타나고, 在下層의 인물에 관한 傳이 이색보다 한 세대 아래인 정도전, 권근 등의 작가에 의해 창작되었다. 이 시기의 신진사대부층은 정치권력에 있어 일정한 세력권을 형성하면서 신유학을 이념적 무기로 하여 자신들의 계층의식을 확고하게 정립시키고 있었다.³²⁾ 사대부층의 인물들에 관한 傳을 가장 많이 남긴 이색부터가 成均館 大司成으로서 麗末에 신유학을 확립시킨 장본인이며 麗末 신유학자들의 代父격이었던 인물이었다. 그 門下에서 이송인 정도전, 권근, 정이오 등이 시기 傳 작가들은 성장하였다. 사대부계급의 인물들에 관한 傳이 뒤이어 在下層의 인물들에 관한 傳이, 정도전, 권근 등에 의해 새로이 창작되고 있었다. 정도전, 권근은 일반 백성층 인물들의 행적을 통해 바로 그들이 참된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士族의 비열한 행위와 대조시키기까지 하고 있었다. 이들의 傳에서 보이는 사대부적 이념의 강도라든가 일반 백성층에 대한 인식은 무인정권기 이래 자신의 세력을 신장시키면서 계층의식을 정립해 온 신진사대부 의식 발전의 최종단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麗末 신진사대부층은 하층신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권문세족과의 대립에서 그들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5. 結

본고에서는 고려후기에 산출된 傳을 통해 이 시기 신홍사대부층의 의식세계의 변모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 文學史에서 文人에 의한 傳의 창작이 일반화되고 傳이 독자적인 문학장르로서 토착화된 것은 무인정권기 이후라고 보인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이 시기 傳의 발

32) 閔賢九, 「辛卯의 執權과 그 政治的 性格」(『역사학보』 38, 40).

전이 무인정권기에 새로운 士人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고 이들이 계속 성장하여 조선전국의 주축이었던 신진사대부계급을 형성하기에 이르는 역사적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고려후기에 와서야 비로소 文人들은 귀족세력의 附庸的인 존재가 아니라 독자적인 하나의 계층으로 그 성격을 전환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그 나름의 독자적 가치와 역사관을 형성할 수 있었다. 漢文學의 諸 장르 중에서도 특히 작가의 역사의식이 강하게 개입되는 傳은 사대부층의 형성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창작될 수 있었던 것이다.

고려후기에 이르러 비로소 假傳, 托傳, 家傳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傳이 창작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傳 장르의 토착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고려후기의 傳 창작은 그 下位장르의 전개에 있어 일정한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假傳이 有意味한 장르로 존재할 수 있었던 시기는 임춘과 이규보의 시대인 12세기 후반~13세기 전반이었으며, 托傳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의 본령을 발한 시기는 이규보와 최해의 시대인 12세기 후반 및 13세기 후반~14세기 전반이었고, 家傳의 시대가 도래한 것은 사대부계급의 독자적 의식이 정립될 수 있었던 14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였다. 이렇게 본다면, 고려 후기 傳의 전개는 대체적으로 파악해 假傳과 托傳에서부터 家傳쪽으로 그 의의와 비중이 옮겨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고, 고려 후기 사대부층의 의식변모의 역사적 추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무인정권기의 假傳은, 무인정권에 대해 반발의식과 참여의식의 양면을 지니고 있었던 당시 文士의 위축된 지위와 의식의 二重性을 잘 보여 주고 있다. 官人으로서의 진출에 대한 깊은 관심 및 당대의 정치현실에 대한 풍유는 假傳이 보여주는 당시 新進士人의 의식세계의 주요한 측면이다.

이규보와 최해의 自傳의 托傳에서 중심적인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아이덴티티(identity)의 확보였다. 이규보와 최해는 모두 자신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인식하고 있는데, 이규보가 낭만적으로 현실을 초월하려는 자세를 보인 데 반해, 최해는 官人으로서의 진출을 포기하고 사원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自嘲하고 있

었는데 그러면서도 현실에 있어서는 끝내 비타협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 그만큼 최해의 시대에는 신진사대부의 自己意識이 현실적인 것으로서 형성되어 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세기 후반, 신진사대부층은 이제 상당한 정도로 자신들의 세력권을 확보하였고 신유학 이념을 통해 계층의식을 정립하여 권문세족과 본격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산출된 家傳은 傳의 소재부터가 사물이나 작가 자신이 아니라 사회 속의 다양한 인물들로 되어 있다. 신홍사대부층은 자기계급의 인물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傳을 통해 사대부적 가치관을 적극 表彰하고자 하였고, 거기서 더 나아가 在下層의 인물들에게까지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麗末 사대부층의 의식이 객관화되고, 사회화되며, 그 이념의 강도 또한 강렬해지는 역사적 추이를 엿볼 수 있다.